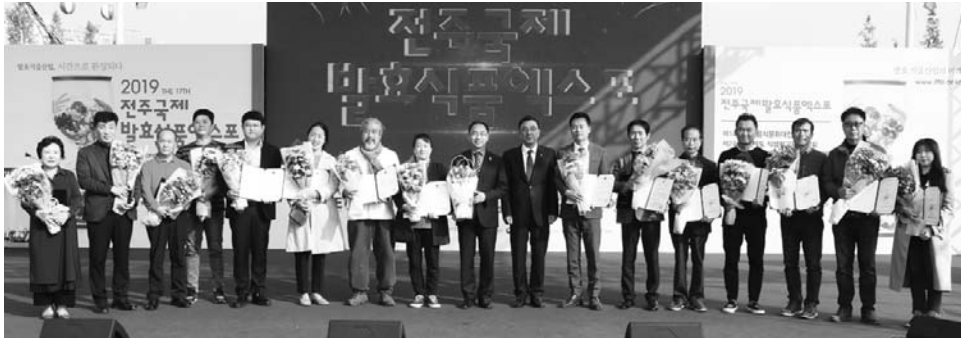


전북 농식품산업 활성화 기여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폐막 특별기획전시 비롯 식품명인대전 등 '호응' 일자리박람회도 열어 폐막식과 함께 열린 우수상품시상식에서 입실샘고을조합 등 수상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우리 발효식품시장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며 4일 오후 2시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폐막식과 함께 열린 IFFE 우수상품시상식.

발효식품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닷새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우리 발효식품시장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며 4일 오후 2시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폐막식에는 엑스포에 참여한 우수 발효식품업체와 언론사, 주관체인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관계자와 행사의 일동공신인 70여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반참관객들이 함께 했다. 올해는 세계 24개국 364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국내외 식품관련 바이어와 각국 대사관 등 식품업계 고위간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전체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했고, 상당수 업체가 바이어들과 구

체적인 추가 협상에 들어가 향후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국내외 참가기업 상품들은 물론, 역대 우수상품 수상제품 특별전, 2019 IFFE 쇼케이스, 세계 10대 식품 트렌드 등 특별기획전시를 비롯해 엑스포 행사와 연계 개최되었던 2019 전라북도식품명인대전,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은 참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글로벌 농식품 교류 및 판로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식품기업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이 행사기간 동안 진행되며 행사장을 찾은 참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폐막식은 5일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IFFE 우수상품시상으로 진행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입실샘고을영농조합의 '산양유

요구르트'와 순창성가정식품의 '묵은지청국장', 선화식품주식회사의 '친정엄마 포기김치', (주)친한 F&B의 '친한 무항생제 입실N치즈 포크 소시지' 등 총 11개 기업이 수상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김동수 원장은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한국의 식품발전을 이끄는 행사로 거듭나며 대한민국의 식품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더 끌어올렸다. 앞으로도 식품을 통한 전라북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확대하여 전라북도가 한국식품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발효식품과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때 활용할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지역 우수 로컬푸드직매장, 인증에 도전하세요'

aT, 15일까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사업장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201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접수를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인증신청 자격은 직매장 판매면적 100㎡ 이상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최

중심의를 통해 연내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항목이다.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홍보마케팅비 지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포함하여 소비

자와의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정부인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관매장 등 전국에 21개소가 있다.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T홈페이지와 바로정보(www.baroinfo.com) 공공문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aT유통기획부(061-931-1019)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하림, 제주올레걷기축제서 닭요리 선봬... 큰 호응 얻어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2019 제주올레걷기축제'에서 국내외의 도보 여행객을 대상으로 닭고기 요리를 선보였다. 하림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열린 '2019 제주올레 걷기축제'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이틀 동안 하림 자연실록 제품을 이용해 만든 닭고기 요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4일 밝혔다.

하나로마트 성공 마무리 업무협의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4일 지역본부에서 전북 관내 하나로마트 점장·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하나로마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위한 좋은 상품연구소 최낙삼 교수의 '요즘 트렌드, 요즘 리더십'에 대한 강의, 판매장 식품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PLS제도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또 호남농산물물류센터(센터장 홍기홍)와 농산물 계통제고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는 등 하나로마트의 고객 중심 농산물 전문매장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 김정철을 맞아 김정재료들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에 더욱 더 매진하기로 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하나로마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 이어서 농가소득이 증대된다"며 "지역 농산물과 6차산업·마늘기업 등의 농업인 생산제품 판매 확대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에 한 발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X, 우즈베크 공무원 초청 국내 선진기술 전시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주도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학)가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을 초청해 국내선진기술을 전시한다. LX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일간 우즈베키스탄 토지지원관 리워워트 공무원 대표단(단장, 압둘가포르바 질롤라 국제관계국장) 16명에게 서울과 전주에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첫 번째 주 연수에서 방문단은 지적측량 업무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현장학습과 관련된 ICT 관련 실무교육을 받았다. 1일에는 LX 글로벌사업처 주관으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면서 우즈베키

스탄 토지제도와 공간정보 분야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2021년 3월까지 수행할 140억 원 규모의 통합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4일에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를 방문해 LX본사와 전북주변 문화관광지를 둘러보며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5일에는 실시간 고정밀 위치정보 취득기술인 GNSS-RTK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Real-Time Kinematic)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을 함께 토지정보 구축, 관리, 활용과 관련된 ICT 관련 실무교육을 받았다. 1일에는 LX 글로벌사업처 주관으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면서 우즈베키

중기 50% "4차 산업혁명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발표... "현실 고려한 정책 부재" 지적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차 산업혁명의 인식 및 대응수준과 정책과제 파악을 위해 300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제5차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인식 및 대응 현황, 제조현장 대응실태 및 개선과제,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평가 및 과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4차 산업혁명 인식 및 대응현황 관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은 과거 중앙회가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개선되지 않았지만, 디지털전환의 체감은 과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 '생산'에 가장 큰 영향(29.3%)을 미치고,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표(55.7%)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응답기업의 50.6%는 4차 산업혁명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대응인력 부족 28.7% ▲투자대비 효과 불확실 28.3% ▲투자자금 부족 27.7% ▲4차 산업혁명 등 교육 부족 19.3% 순으로 응답했다. 제조현장 대응실태 및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수준은 대부분 1단계(25.0%)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24년)내 대응 목표 수준은 ▲1단계 21% ▲3단계 이상 23.0% ▲2단계 15.7% 순으로 응답했다.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해 클라우드/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할 경우 '효율성 증대'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조사됐다. 다만, 비용부담(38.2%), 전담·운영인력 등 조직역량 부족(30.5%) 등이 걸림돌로 나타났다. 제조현장에서 가장 우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장인력 부족34.0% ▲생산설비 노후화 27.3% ▲시스템 도입 및 관리 24.3% ▲낮은 생산성 18.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관련 중소기업의 12.7%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향후 정부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53.7% ▲투자/연구자금 관련 세제혜택 등 지원 36.3% ▲인재양성 및 근로자 재교육 지원 26.7% ▲신기술/시스템 및 설비 지원 확대 18.7%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및 고도화 지원 1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윤상 기자

일시: 2019. 11. 4(월) 장소: 농우바이오 5층



민간 첨단육종 활성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농우바이오가 4일 경기도 수원시 농우바이오 본사에서 민간 첨단육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민간 첨단육종 지원 상호 협력과 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이병각 농우바이오대표이사,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기술 표준화로 화분 매개 곤충 생산 효율 'Up'

농진청, 생산자 교육·정보통신기술 적용 시연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오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에서 국내 최초 화분 곤충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한 '화분 매개 곤충 생산자 교육 및 ICT(정보통신기술) 적용 시연회'를 연다. 최근 화분 매개 곤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화분 매개 곤충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곤충별 사용 기술 표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각 도 농업기술원, 양봉협회, 대한민국의수정협회 등에서 참가한 화분 매개 곤충 생산자들은 표준 이용과 관리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시연회에서는 '국내 화분 매개 곤충 연구 현황과 전망'을 시작으로 △말기 및 수확 화분 매개용 꿀벌의 표준 사용 기술 △화분 매개 전용 꿀벌벌통의 특성 △화분 매개 곤충 대상 농약 관리 및 독성 평가 등 주제 발표와 현안 토의가 이어진다.

부담은 더는 방식이다. 스마트 화분 매개용 벌통은 IoT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벌통을 관리할 수 있어 작물 생산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스머프 오르골워터볼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이 달 4일부터 29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 중 총 3,000명을 추첨해 NH농협은행 한정판으로 제작한 스머프 오르골워터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재된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면 총 300명을 추첨해 스머프 오르골워터볼을 증정한다. 당첨 고객은 12월 둘째 주에 NH농협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에게는 은행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